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9월 11일(금)
(음력 7월 29일)
Пятница
11 сентября 2026 г.
№ 36 (1220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오는 9월 1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ㅏ 창설 144주년을 맞이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거리에 세워진 도시의 날 축하포스터.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인구증가·드론 과제 해결에 나서

사할린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 본회의 연설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년간 러시아 극동지역에 약 25조 루블리의 투자금이 유치되었다며 극동지역에서 투자활동과 산업성장, 건설의 활력이 안정적인 가운데 러시아 평균 속도를 상회하고 있고, 한 해 극동지역의 지역 총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업 지원에 전례 없는 대규모와 가용시스템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미 전 극동지역과 북극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특혜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의 특별경제특별구역이나 선도개발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전 극동지역의 사업 종목을 위해 구축되었다. 극동지역과 북극 여러 지역의 투자기획에는 특혜 사항들이 제공되는데 보험료 감면, 세금 및 관세 특혜, 각종 제반시설 구축 및 생산시설 건설 지원 등등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운송수단이 될 무인기에 관심을 기울여 무인기개발로 철도나 항로처럼 저고도 상공은 드론의 중요한 운송로가 되고 있으므로 드론을 이용한 자율적 민간화물 운송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과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할린 지역은 전체 극동지역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사할린 지역에 고정투자액은 20% 증가한 4천500억 루블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중 하나로 투자액의 절반은 석유 및 가스 분야와 무관한 분야에 투입되었는데 90%가 민간경제 분야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기업 지원에 여러 갈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장벽을 완화했다. 전체 투자진행과정(기획,심사, 실행, 구축, 회수,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10% -15% 단축하여 사할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경제를 촉진시킬 무인기 도입을 언급한 가운데 사할린 지역에서는 이미 드론 활용이 적극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 최초 '푸쉬스틔' 드론 공항이 사할린에 건설되었고, 본격적인 '압로라-무인기' 무인항공사가 설립되었다. 드론은 도로와 파이프라인과 전력선의 상태를 추적 파악하고, 복잡한 제반시설 보호를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구문제에 있어 출산율 향상을 위해 극동지역에서 탄생하는 셋째 아이에 대한 인상된 출산장려금 지급을 2030년까지 연장할 것을 대통령이 제안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모성과 아동지원으로 이에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행복한 어머니〉 지역 기획의 일환으로 여성의 임신 기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위한 전면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사할린 지역에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이의 탄생이 가족에게 진정한 기쁨과 오직 즐거운 수고만이 있는 여건을 조성해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 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주 추가 예산, 사회 분야에 투입

사할린주 2026년 예산에 약 40억 루블리의 추가 수입이 확보돼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될 예정이다. 사할린주 두마 의원들은 주 정부가 제출한 관련 수정안을 승인했다.

추가 예산은 주로 사할린-2 석유 및 가스사업의 법인세로 이로써 예산의 수입은 2048억 루블리, 지출은 2321억 루블리로 늘어났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총재는 "세입 자금은 주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주민 지원조치에 대한 재정 지원 , 공공요금 인상 억제, 문화·교육·보건·체육 시설의 대대적 수리, 노후 주택으로부터 거주민 이주, 정부 계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주내 항공료 보조금 등에 우선 배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체 재정지원 확대도 담고 있어 이 자금은 건물의 지하실 대대적 수리, 학교 학생들의 급식, 아니와 지역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등에 투입된다. 의원들은 2026년 및 2027~2028년 계획 기간 사할린주 예산 수정안을 두 차례 걸쳐 심의해 통과시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44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창설 144주년 맞아 9월 12일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올해 '도시의 날'축제는 〈유즈늬는 화합하는 도시〉라는 표어 아래 러시아 민족 단결의 해를 기념한다.

기념 행사는 주로 가가린 공원의 여러 행사장과 로가트카 강변에서 진행된다.

12일(토) 오전 11시 제방에서는 '왕 꽃다발' 축제와 미술작품 시장 아트 페어(art fair) '물 위의 나의 도시', 베르흐녜예 호수 남쪽에서는 독특한 수공예품 판매.

오후 2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야외 공연,

오후 5시에는 '함께: 도시와 대학생들' 행사가 이어진다. 또한 가가린 공원에서11시 30분부터 '민족 모자이크' 문화 및 민속학 구역이 개장돼 다음과 같은 민족별 공간 체험이 운영된다: '러시아의 집', '타타르 마을', '한민족 마을', '부랴트 마을', '닙흐 마을', '아르메니아 마을', '알타이 마을'.

시공원의 '코스모스' 경기장에서는 12시에 '도시의 날'축제 개막식이 열리고, 12시 45분 약수터에서는 '꽃피는 유즈늬' 경연의 시상식과 블라디미르 추이코의 책 발표회가 진행된다.

저녁 오후 6시에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도시의 심장: 우리는 하나' 콘서트가 열리고, 오후 8시 30분에는 축제 행사의 절정으로 러시아의 유명 '투레츠키 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조직위원회는 축제 방문객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징용 아픔 서린 사할린-왓카나이, 북방물류 거점 주목

강제징용 후손들, 이산의 아픔 딛고 사할린에 정착해 주류사회 진출

"역사 잊지 않지만 미래로 나아갈 때"…한 · 러 · 일 가교 역할 기대

(코르사코프 · 유즈노사할린스크[러시아] · 왓카나이[일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선인들은 사할린 최남단 코르사코프 항구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도착하는 배마다 일본인만 태우고 돌아갔죠. 끝내 오지 않은 배를 기다리다 지쳐 바다로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1938년 일제는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 조선인들을 남사할린으로 강제동원했다. 이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벌목장 등 군수시설 현장에 투입됐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에는 전쟁물자 수송이 어려워지자 이들을 일본 본토로 재징용하는 '이중징용'을 시작했고, 이들은 일본 패망 후 사할린 또는 한국에 가족을 둔 채 이산의 삶을 살아야 했다.

당시 징용은 일본 최북단 항구인 홋카이도 왓카나이와 코르사코프를 오가는 연락선에 의해 행해졌다.

코르사코프시에서 종합건축업을 하는 오정대(80) 회장은 지난 8월 8일 코르사코프 항구 언덕에 자리한 '망향의 탑'에서 항구 부두를 가리키며 "어린 시절 항구 앞에 살았는데 남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할린 각지에서 몰려든 징용자들이 많았다."며 "이들은 고국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가 많아 '홀아비'라고 불렸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판자촌을 형성해 살던 홀아비들이 항구에 나갔다가 고국 가는 배가 없어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곤 했는데 가끔 내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항구 앞에 밀집했던 판자촌도 한인 거리도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오 씨는 집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2007년 코르사코프 항구에 고국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뜬 한인들을 위해 '망향의 탑'을 세울 때 대우건설 하청업체로 건립을 주도했던 오 회장은 "일본 배가 와서 일본인만 태워 가며 조선인은 탈 수 없다고 할 때 울부짖던 홀아비 아저씨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며 "2세들은 고향을 간절하게 그리워했던 1세들의 마음을 이어받았고 후손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소도시인 코르사코프는 슬픈 과거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향후 한-일-러 협력의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품고 있다.

사할린 새고려신문의 배 윅토리아 대표는 "과거 조선인 수송선이 오가던 '망향의 바다'가 이제는 북극해 항로(NSR) 및 대륙철도 연결망의 해양 물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1세대 분들이 하루가 달리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서 세월의 무상함도 느껴지지만 이제는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제징용 · 이중징용…4만여 명의 잊힌 사람들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자원 공급 기지였던 남사할린의 탄광, 군사 도로, 철도, 산림 현장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1939년부터 조선의 삼남 지방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4만 명 이상을 강제 동원했다.

당시 겨울이면 영하 30~4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12시간 이상의 중노동, 열악한 주거와 식사, 일제의 감시와 폭력 속에서 많은 한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1944년 연합군의 해상 봉쇄로 일본 본토로의 석탄 수송이 어려워지자 본토 탄광과 군수공장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1만여 명이 이중징용됐다.

이 과정에서 사할린에 남아 있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가장과 생이별을 겪어야 했다.

1945년 8월 패전 후 일본 정부와 소련은 협정을 맺고 사할린에 있는 30만여 명의 일본인을 본토로 무사히 송환했지만 한인들은 방치됐다.

한인 2세인 김영희(70) 사할린주향토박물관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당시 '한인은 이제 일본인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송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과 냉전의 여파로 소련과 국교가 없어 손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사할린에 남겨진 1세 한인들은 대부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살았다."며 "남한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을 때 국적 때문에 귀국길이 막힐까 염려되어서였다."고 밝혔다.

무국적자였기에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도 못 받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기에 한인들은 대부분 텃밭 등을 일궈 시장에 내다 팔며 근근이 연명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연합회장은 "일본인과 가정을 이뤘던 한인들은 1958년 일본 귀국이 이뤄졌고, 사할린에 3만여 명의 동포가 살고 있음을 모국에 알리기 전까지 이들은 잊힌 존재"였다며 "1990년 한-소 수교를 하기 전까지 이들은 한 명도 고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였다."고 말했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제12회 〈섬 - 생선〉 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9월 5일(토)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박물관 앞마당에서 올해로 12회째 맞는 〈섬 - 생선〉축제에 사할린주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참여했다. 전과 같이 사할린 지역 특산품 생산자들이 풍성하고도 다양한 특산품들을 판매장에서 선보인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당연 생선과 해산물, 사할린 생산업체들이 제공하는 해산물요리였다. 푸드코트 구역에서는 조리된 요리들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었다.

축제 고객들은 행사장에서 지역 생산품을 직접 맛보고, 구매하며, 쉬면서 생활의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도시에 매우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축제 행사 무대에서는 '바다의 선물' 미식마라톤 우승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미식마라톤의 우승은 '미스터 로빈'가족 카페의 조리 및 요리사인 알렉산드라 오쥬마가 선정돼 러시아 요리 및 조리사연합회 사할린 지부장인 알렉산드르 포킨이 우승 증서를 수여했다.

축제 행사장에는 해양을 주제로 사진 찍는 구역과 아동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조성되었고, 성인을 위한 활동교실도 진행되었으며, 행사를 축하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단의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전통적 시식 행사로 사할린의 생선 수프와 연어알을 얹은 유명한 대형 샌드위치, 올해 깜짝 메뉴로 요리사들이 준비한 차오판(해산물밥)을 맛보는 것이 이번 축제의 대미가 되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XII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5 сентября, в субботу,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музеем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ходил уже в 12-й раз. Сахалински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по традиции развернули торговые ряды, где представили богатый ассортимент местной продукции. Но конечно наи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пользовались рыба, морепродукты и морские деликатесы от островн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Готовые блюда можн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и отведать здесь же в зоне фут-корта.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были единодушны в том, что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городу очень нужны: люди 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и купить местную продукцию, отдохнуть и получить заряд энергии.

По традиции на сцене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я гастро-марафона «Дары морей». В этом году им стала Александра Озюма — шеф-повар семейного кафе «Мистер Робин». Диплом победителя ей вруч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Ассоциации шеф-поваров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 Фокин.

На площадке фестиваля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фотозоны морской тематики, игр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малышей, проходи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раздничную атмосферу создавала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от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Кульминацией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уго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ая уха, знаменитый бутерброд-гигант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и в качестве блюда-сюрприза шеф-повара в этом году приготовили чаофань (рис с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라두가'센터, 아동과의 활동을 위한 새로운 악기 기증받아

노워알렉산드롭스크에 있는 '라두가'민속문화센터가 정부 장려금 지원에 참가한 덕분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족'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따른 기획을 시행하고 있다.

'라두가' 센터장인 스웨틀라나 사도와야는 이러한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적 제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회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물질적, 기술적 자원을 확충하여 '라도스테야' 민속 앙상블 예술단을 위해 키로브 출신의 이완 나자로브 장인이 손수 제작한 희귀한 관악기 잘레이카를 특별제작 주문했다. 이어 유명한 민속악기로서 아동과 함께 상호작용 활동에 사용될 필리모노보 도자기 피리도 툴라주에서 제작돼 곧 도착할 예정이고, 공장에서 제작된 나무 숟가락도 구매했다. 이 모든 민속악기들은 아동과의 활동수업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라두가'센터의 미술 지도자이며, 독립 민속예술단 '라도스테야' 민속앙상블의 지도자인 류보위 포즈드냐코와는 "우리는 이 기획의 일환으로 유치원생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원생들과 러시아 민속악기와 타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며, 노래하고 있다. 원생들은 악기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문화적 코드가 발동해 아이들은 쉽고, 즐겁게 익히고 있다. 교육단체나 문화-오락 단체들도 이러한 기획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술단은 아동과 함께 하는 수업을 위해 베틀의 실 감는 실패와 실로 된 공과 같은 다채로운 소품들도 사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실을 잣고, 직물을 짰으며, 가정에서 어른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다.

'라두가'센터가 기획을 추진하는 취지는 러시아 전통 악기와 노래, 민속악기 연주를 통해 유치원생들에게 러시아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연주하며, 노래하고, 풍습과 민요 속에 담긴 민속적 지혜를 배우고 있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라두가'센터는 정보자료와 오디오 형태의 온라인 교육자료를 위한 대규모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술단은 동요를 편곡하고, 전통악기인 발랄라이카, 잘레이카, 트레쇼트키(나무조각을 엮은 박)로 연주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교육자료로 쓰도록 하여 이미 모스크바와 크라스노고르스크, 루한스크에서는 활용되고 있다.

사할린주 정부도 이 기획을 지원하는 가운데 10월에 발표회가 열릴 예정이고, 제작된 교육자료를 지역 유치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Центр «Радуга» получил новые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работы с детьми

Центр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товых программах, а также реализует инициативы по сохранению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 ли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Светлана Садовая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так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яет расширять спектр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создания семей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культу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 учреждение пополнило свою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По специальному заказу для коллектива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Радостея» изготовлены жалейки — редкие дух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которые создает вручную мастер Иван Назаров из Киров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тся посылка из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с филимоновскими свистульками — знаменитой народной игрушкой, которая станет частью интерактивных занятий с детьми. Также были приобретены заводские деревянные ложки. Все эти инструменты планир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В рамках нашего проекта мы проводим занятия с ребятами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совместно с родителями тоже. Поем и играем с ними на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 шум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Дети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что с ними делать и как на них играть — срабатывает культурный код, и они очень легко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это воспринимают. Проект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 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подчеркну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ЦНК «Радуга», руководитель народного самодеятель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Радостея» Любовь Позднякова.

Кроме этого, для занятий с детьми коллектив использует яркие атрибуты — веретенца, клубочки. Ребятам рассказывают, как наши предки пряли, как ткали, и как важно помогать в семье старшим.

Главная идея проекта ЦНК «Радуга» — через русские традиционные игры, песни и игру на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познакомить дошкольников с культурным наследием. Занятия проходя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где дети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играют, поют и узнают народную мудрость, заложенную в обрядах и фольклоре.

(8면에 계속)

사할린동포 2세들의 요청으로 아래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과 개정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할린동포가 사망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가족에게 동반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26호, 2026.3.10 공포, 9.11.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전 지원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지원 외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지원의 신청기한 및 지원 여부 통지기한을 1개월씩 앞당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원
2. 〈국적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의 지원
3.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직업·생활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4.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조력(助力) 제공
5.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월 30일"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할린동포: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생증명서
2) 제적등본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따른 피해자 결정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혼인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사할린동포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사망 당시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라. 법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동반가족: 다음의 모든 서류

1)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 관한 가목의 서류
2)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나목의 서류

2. 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에 같은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적혀 있거나, 신청 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이름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6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의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문서(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7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국적 판정의 신청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에 관한 업무
7.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철회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연해주 독립 유공자를 찾아서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학 호

관리번호	95266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학호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함경남도 이원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을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의회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의회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파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 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학호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묘소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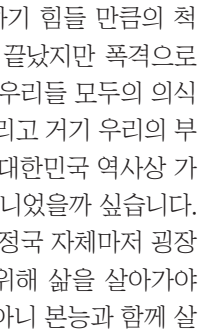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가을의 기도 /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1957년 김현승 시인의 가을 시를 소개합니다. 70년이 다 된 시가 대한민국에 살아남아 제 눈에 쏘옥 들어옵니다. 기적이 맞겠지요. 70여년 전의 시인의 의식이 제 시선에 들어와 제 의식의 한 부분을 잠깐이나마 머물고 있는 중일 테니.

요즘의 한국 시단의 풍경은 서정시에 대한 반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라도 하려는 듯, 좋게 말하자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여년 전의 시들과 요즘의 시들을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냐 하시겠지만 표현의 다양성만큼은 분명해졌네요. 반면, 파격적인 시선들인 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작품으로써의 감흥만큼은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겠지만, 가슴으로 뭔가를 수 놓으려는 분위기보다는 좀 더 펜촉이 가질 수 있는 상황적 사념들에 의존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트북으로 단어를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우고 이런 집필 과정 역시 노력의 산물인 건 분명해 보이지만, 제가 시인이라면 만년필로 꾹꾹 원고지에 한 자 한 자 눌러쓸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시'만큼은 그 길이가 비교적 짧아서가 아니라 유서를 닮은 원고 같기 때문입니다. 70여년 전 김현승 시인이 시를 쓰는 모습을 떠올린다는 게, 이번에도 제가 좀 멀리 왔네요, 죄송, ㅋ.

1957년의 서울 거리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척박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폭격으로 인해 아직 남겨진 잔해들은 아직 우리들 모두의 의식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테니. 그리고 거기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절이라 하면 이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도 전에 정국 자체마저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절. 그저 살기 위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명제 아래, 철학 아래, 아니 본능과 함께 살아야만 했겠지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모처럼 사색의 방향이 일단의 끝을 따르지 않고, 좀 더 제 의식의 미로 속을 거닐고 싶어졌어요. 요즘 글이 슬슬 풀리는 편인데, 밤이 오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할린 아니와 해변에서 조개도 줍고 한참을 낚시도 하다가 밤이 오면 꼬냑을 탕탕 비워가며 원고에 집중하면 딱 좋을 것만 같은데, 과감히 서랍 속에 묵힌 미련 가득한 소재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인생이란 그런 기회를 또 다시 쉽게 내어주지 않네요. 가가린 공원의 나른한 가을 오후가 그리워집니다. 특히 거기 가가린 호텔 맞은 편 검정 장갑 끼고 먹는 햄버거 집! 아 놔, 거기 진짜 햄버거랑 맥주 대박 맛있었는데, 아오! 항공편 열리면 이맘 즈음 바로 갈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четный житель любимого города

С 1999 года в Корсакове существует добрая традиция – в День города присваивать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5 сентябр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нагрудный знак директору ООО «Строймаркет» О Ден Те (Валерию Петровичу) вручила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командой он внес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и процветание любимого города – Корсакова.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сегодня вручила нагрудный знак человеку, труд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для корсаковцев знаком качества, – директору ООО «Строймаркет» О Ден Те (Валерию Петровичу). Вклад Валерия Петровича 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нашего города оценить невозможно. Все этапы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ковки, новый сквер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бновление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это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лет», – сообщила в своем MAX-канале мэр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алерий Петрович – коренной корсаковец. Он здесь родился, живет и работает. Хорошо известен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Меценат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 он очень любит свой родной город.

Ким Ен Уну — 85!

Моисей КИМ, культуролог

8 августа 2026 г. исполнилось 85 лет Ким Ен Уну — почетному работнику науки и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едущему научному сотруднику Института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РАН (ранее —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центу, кандидату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общественному деятелю.

Ким Ен Ун родился 18 августа 1941 г. в Шахтёрске в южной части о. Сахалин, находившейся в то время в составе Японии в многодетной семье.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выдали его родителям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 японской фамилией и именем. Он был обречен на судьбу второсортного жителя империи, т.к. по его фамилии все японцы могли сразу определить, что он кореец. Возвращ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в 1945 г. позволило восстановить ему корейские имя и фамилию. В СССР все его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в семье было три сына и три дочери) окончили техникумы и вузы. Ким Ен Ун прошел путь от разнорабочего д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доцента вуза и ведущего научного работника россий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Общий стаж работы — более 60 лет, в том числе науч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й — 38 лет.

Окончил Иркут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сторик, учитель истории и обществоведения (1965), аспирантуру Ирку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968). В 1973 г. защитил диссертацию на степень кандидата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В 1968–1977 гг. был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доцентом Иркут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1977 по 1989 гг. — доцентом О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1992 г. обучался в Высшей школе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при МГУ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оли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олитология», «социология». В 1990–1995 гг. был приглашенны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Института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МГУ, Высшей школы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и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к при МГУ им. М.В. Ломоносова. С 2013 г. ведет занятия по истории и политике Кореи в НИУ ВШЭ.

После избрания в 1989 г. депутато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являлся членом Комитета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октябрь 1989 — март 1991 гг.); в апреле 1991 г. —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одкомитета по регламенту Комитета ВС СССР п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строительству; членом Комиссии по депутатской этике и сопредседателем депутатской группы «Союз». В 1994–2004 гг. Ким Ен Ун работал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мощником депутатов.

С 2003 г. работает в Центре 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ЦКИ) ИДВ РАН, сначала старшим, а затем ведущим научным сотрудником, теперь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Институте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Ким Ен Ун признан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корееведам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блем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ежкорейским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м отношениям. В его активе подтвердившиеся научные прогнозы победителей на нескольких последних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академических обменов с научными центрами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им Ен Ун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ет большой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накопленный в период его работы в высшем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органе нашей страны,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вязи в нау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кругах.

Ким Ен Ун.
Москва, май 2000 г.
Фото Владимира Шина

Он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в ИДВ РАН трех первых в истории РАН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ученых-гуманитариев России,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2014 и 2015 гг. В сентябре 2021 г. выступил с докладом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Хабаровский процесс: истор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вызовы»,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Российским историческим обществом, Фондом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ядом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институтов РАН и вузов России. Ким Ен Ун участник десятков 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аучных конференции, семинаров, симпозиумов, круглых столов.

За годы работы в ИДВ РАН и в Институте Китая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зии Ким Ен Уном опубликовано свыше 150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внесших весомый вклад в отечественн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Общее число его печатных работ составляет более 280 книг, брошюр, статей. Ким Ен Ун — один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Постановления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РФ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нятого 1 апреля 1993 г..

Обширные знания о Корее в сочетании с личной скромностью, интеллигентностью и тактом в отношениях с людьми снискали ему авторитет и глубокое уважение коллег по работе, трудовой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меет множ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Источник: https://koryo-saram.site/kim-en-unu-85/#more-58995)

Проект Указа о частичном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каз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Указ о примен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носятся следующие изменения.

Пункт 3 части 3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③ Под «мерами, устанавливаемыми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ми пунктом 4 части 1 статьи 5 Закона, понимаются следующие меры:

1.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лучении выплат,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статьёй 7 Закона «Об обеспечении базов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Содействие в прохождении процедуры у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20 Закона «О гражданстве» (국적법), включая разъяснение порядк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и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3.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адаптации к жизн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 также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о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ах;

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иной помощи (조력) для решения правовых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вопросов, возникающих в процессе обустройств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5. Иные меры, которые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знаёт необходимыми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в вопросах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обустройства и обеспечения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вводной части статьи 3, не относящейся ни к одному из пунктов, слова «30 апреля» заменить словами «31 марта»; пункт 1 той же статьи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пункт 2 той же статьи считать пунктом 3; дополнить эту статью новым пунктом 2 следующего содержания; пункт 3 той же статьи (прежний пункт 2) изложить в следующей редакции.

1. Документ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ледующими категориями:

а.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ец: один из след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корейцем (韓人), род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либо пересели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 до указанной даты:

1)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2) выписка из семейного реестра (제적등본);

3)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пострадавшим, принято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29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расследовании ущерба, причинённог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ей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подства, и поддержке жертв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за пределами Кореи;

4) ино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знаёт достаточным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факта.

б.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член семь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пунктом «а» части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один из следующих документов,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либо ребён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либо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такого ребёнка:

1)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2)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3)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емейных отношениях (가족관계증명서);

4) иной документ, который глав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знаёт достаточным дл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факта.

в.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член семь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пунктом «б» части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все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1) документы по подпункту «а»,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умершее лицо являлось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ем;

2)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новных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기본증명서),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мерти (사망진단서) либо иной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факт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3) документы по подпункту «б»,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на момент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заявитель являлся его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ребёнком либо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его ребёнка.

г.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член семьи,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й пунктом «в» части 2 статьи 2 Закона: все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1) документы по подпункту «а»,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лицо является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ем либо являлось умерши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ем;

2) в случае смерти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б основных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기본증명서),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смерти (사망진단서) либо иной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факт смерти;

3)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у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либо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вследствие смерти или по иным причинам отсутствуют дети и их супруги;

4) документы по подпункту «б»,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что заявитель является прямым потомк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либо умерш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ейца или супругом (супругой) такого прямого потомка.

2. Если в документах, представляемы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унктом 1, имя одного и того же лица указано по-разному либо имя, указанное в этих документах, отличается от имени заявителя на момент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 документы, позволяющие подтвердить изменение имени.

3. Офици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компетентного органа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котором заявитель проживал не менее шести месяцев, содержащий свед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проверки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судимости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документом, выданным в течение шести месяцев,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дате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части 3 статьи 4 слова «31 июля» заменить словами «30 июня».

Пункты 1–3 статьи 5 считать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унктами 4–6; дополнить эту статью новыми пунктами 1–3 и пунктом 7 следующего содержания:

1. работа по поддержке в оплате авиаперелёта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средств на первоначаль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пунктом 1 части 1 статьи 5 Закона;

2. работа по разъяснению порядк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и содействию в подготовке подаваемых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пунктом 2 части 3 статьи 2-3 настоящего Указа;

3. работа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ю информации и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о социальных услуг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пунктом 3 части 3 статьи 2-3 настоящего Указа;

7. работа по приёму заявлений об отзыве заявления на получение поддержки в связи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постоянное жительство, обустройством и обеспечением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частью 1 статьи 4-2.

ЗАКЛЮЧИТЕЛЬНЫЕ ПОЛОЖЕНИЯ (부칙)

Настоящий Указ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о дня его обнародования. Однако изменённые положения пункта 1 статьи 3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11 сентября 2026 года.

Перевод Жанны Те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Ли Чжэ Мё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бизнес-форуме РК и Фран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южнокорейско-французском бизнес-форуме, состоявшемся 8 сентября в Париже.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о развитию делов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компаниями двух стр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 РК и Франции, а также лидеры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двух стран обсуд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х отраслях будущего, включа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вант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транспортную мобильность, энергетику, биотехнологии и индустрию красоты. Цель встречи - объединить конкурент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РК и Франции, а также переве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рактическую плоскость, реализовав совместные бизнес-проекты 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суждались перспективы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Samsung Electronics и французской Mistral AI.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рассмотрели планы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оисковой платформы Naver и Mistral AI по совместному выходу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Выслушав мн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обеих стран,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отметил, что потенциал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чрезвычайно широк и охватывает самые разные сферы. Объединение сильных сторон РК и Франции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новые рынки и откры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 этом ос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могут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е отрасли, но и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Главой Чогечжон переизбран преподобный Чину

3 сентября преподобный Чину, действующий глава буддийского ордена Чогечжон, был переизбран на тот же пост на очередной срок. Чину набрал 57% голосов на выборах и опередил преподобного Кёну,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43% голосов. Чину стал вторым в истории ордена Чогечжон его главой, избранным на второй срок,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2013 году на второй срок был избран преподобный Часын. 28 сентября,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его кандидатуры собранием старейшин, преподобный Чину приступит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четырёхлетний срок. «Я постараюсь посвятить себя тому, чтобы открыть новую эру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буддизма»,- заявил Чину после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Он также пообещал сделать буддизм более молодым и динамичным.

Спортсмены РК настроены на успех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3 сентября Корей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и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провёл церемонию провод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делегации на Азиатские игры,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в Японии с 19 сентября по 4 октября. Участники разыграют 469 комплектов медалей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71 дисциплине по 43 видам спор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медали в 41 виде спорта. В национальной спортивной делегации 1.052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792 спортсмена. Корей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и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поставил цель завоевать 40–45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и сохранить по меньшей мере третье место в общем зачёте. После второго места на Играх 2014 года в Инчхоне РК занимала третьи места в 2018 году в Индонезии и в 2023 году в Китае. «Я убеждён, что ваши упорство и воля к победе тронут сердца многих людей как на родине, так и во всём мир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поддерживать вас каждую минуту, чтобы вы смогли выступить в наилучшей форме и заверш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здоровыми»,- говорится в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послании спортсменам, которое напра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Стоимость поминального стола на Чхусок 313 тыс. вон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для семьи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для поминального стола на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оставит в этом году 313.089 вон (233 доллара).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ведённого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итывались цены на основных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и в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сетях Сеула. Нынешняя сумма на 2,3% мен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ак, цены на фрукты нового урожая ниже прошлогодних. Груши подешевели на 12,9%, а яблоки на 8,7%. Что касается морепродуктов, то сушёный минтай подорожал на 7,3%, филе минтая - на 3,0%. При этом жёлтый горбыль подешевел на 24,5%.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ая продукция на 30,7%, а овощи и лесная продукция на 26,0% дешевле, чем в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сетях. При этом яйца можно купить в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сетях на 28,7%, яблоки - на 23,5%, груши - на 19,2%, а сушёную хурму - на 16,0% дешевле, чем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Чхусок отмеча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25 сентября.

RKI

КНДР подняла флаг: вслед за мостом с Россией Корея готовится запустить новый переход с Китае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хоже, приступила к расширению сухопу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сразу с двумя своими главными соседями. 7 сентября Россия и КНДР официально открыли первы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мост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а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свидетельства подготовки к запуску давно построенн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перехода между КНДР и Китаем.

Как сообщает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Тона Ильбо" со ссылкой на японскую "Ёмиури Симбун",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Нового моста через Амноккан, соединяющего Синыйчжу с китайским Даньдуном, установлены огромные въездные ворота с золотой надписью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Рядом появилось новое многоэтажное здание, над которым уже развева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КНДР. По оценке японского издания, сооружение,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предназначено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таможни. В районе перехода также приводятся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ные дороги, а 3 сентября были замечены сотрудники, проверявшие нов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Ёмиури" делает вывод, что подготовка к открытию моста вступила в завершающую стадию.

Аналог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фиксируются и из космоса. Американский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ресурс 38 North,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коммерческие спутниковые снимки от 30 августа, сообщил о значительном продвиже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оргового и погранично-пропуск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ъезда на мост.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ессе допускают, что долгожданное открытие перехода может быть приурочено к 77-й годовщине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НДР и Китая 6 октября. Официально такая дата пока не объявлялась.

История переправы этого моста необычна. Трехкилометровый четырехполосный Новый мост через Амноккан был построен еще в 2014 году. Китай рассчитывал с его помощью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автомобильные грузоперевозк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днако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долгое время отсутствов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подъездные дороги и погранич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результате дорогостоящий объект больше десяти лет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использовался, хотя фактически все это время был готов к эксплуатации.

Открытие новой переправы способно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глав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а между Китаем и КНДР.

Действующий мост китайск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между Синыйчжу и Даньдуном был построен еще в 1943 году. На нем имеются по одно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полосе, что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ивает объем перевозок. После открытия новой четырехполосной переправы значительную часть автомобильных грузов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еренаправить туда, тогда как старый мост сможет в 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сообщения.

Характерно, что новости о скором запуске китайского перехода появились в тот же день, когда заработал нов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коридор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7 сентября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фициально открыли первы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ную. Разрешение на начало движения по видеосвязи д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и глава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КНДР Пак Тхэ Сон.

До сих пор две страны, имеющие около 17 километров общей границы, были связаны только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м мостом Дружбы. Новый переход впервые позволяет напрямую перевозить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Приморьем и КНДР автомобили, автобусы и грузовики.

Мост получил имя Якова Новиченко - советского офицера, который в 1946 году во время митинга в Пхеньяне закрыл собой гранату, брошенную в сторону Ким Ир Сена. Вместе с открытием переправы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го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пункта пропуска "Хасан" с десятью полосами движе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лучает или готовится получить два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енных автомобильных коридора - на россий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ях.

Если новый мост Синыйчжу-Даньдун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работает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это позволит КНДР резко увелич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сухопутной торговли с Китаем, тогда как новый переход через Туманную расширяет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 Росси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Ульсан настроен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Посол РФ Зиновьев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мэром города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Ульсане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в энергетике, логистике и освоении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расчитывая после улучш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вязи с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Перспектив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судили 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еоргий Зиновьев и мэр Ульсана Ким Сан Ук.

Переговоры состоялись 4 сентября в мэрии Ульсана. Как сообщ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Financial News, стороны уделили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му и логист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том числе перспективам превращения Ульсана в один из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центро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им Сан Ук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льсан располагает крупнейшим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ртом по перевалке наливных грузов 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центров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аны. Особые перспективы городские власти связывают с возможным развитием арк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Надеюсь, что в ближайшем будущем СПГ с росси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Ямал и нефть с Камчатки будут поступать в порт Ульсана, принося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обеим странам", - заявил Ким Сан Ук.

Зиновьев,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ддержал планы Ульсана по развитию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хаба. Как пишет издание,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заявил 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Москвы в активном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восточном, азиат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Financial News излагает его позицию как готовность России активнее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Востоком, чем с Европой.

Отдельной темой стал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межрегиональных связей. Ульсан уже имеет длительную истор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В 2003 году город установил побратим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Томском, а в 2018 г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Ульсан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В ноябре 2021 года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шел третий Фору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Теперь власти Ульсана намерены расширить географию таких контактов. Город планирует проработать установление побратимских ил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богатой природными ресурс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В Ульсане рассчитываю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ынешние контакты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осно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на случай улучшения общ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и этом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тдельно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намерена действовать в рамках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центр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к сообщила газета "Кёнхян Синмун", Ким Сан Ук рассказал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о планах превратить порт Ульсана в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центр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преддверии развития Северного морского пути и обсудил с Зиновьевым вариан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сл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Нынешний визит российского посла в Ульсан стал первым примерно за пять лет.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й дипмиссии официально посещал город в ноябре 2021 года, когда тогдашний посол Андрей Кулик участвовал в Форуме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Нынешняя поездка состоялась по приглашению Ким Сан Ука, который еще в июне, будучи избранным мэром, встретился с Зиновьевым на приеме по случаю Дня России в Сеуле.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Зиновьев и Ким знакомы уже давно - еще со времени работы нынешнего мэр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в Ульсане Ким Сан Ук назвал россий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другом сердца/душевным другом". Мэр подарил Зиновьеву традиционную корейскую заколку для галстука, выполненную в технике чхильбо, а российский посол в ответ преподнес изделие уральских мастеров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двуглавого орл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решать поставленные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задачи в экономике, демографии и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удет решать задачи, связанные с привлечением инвестиций, улучшением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и внедрением беспило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тавил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за 11 лет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привлечено около 25 тр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апитальных вложений. Динамика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рост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десь стабильно превышают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е темпы. Валовой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 это время увеличился более чем в три раза.

- Мы запускаем беспрецедентную по масштабам, по своему охвату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Уже с 1 января будущего года на всем, теперь уже на вс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Арктике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единый преференциальный режим. Его идея в том, чтобы инструменты поддержки были не привязаны к какой-то конкретной особой зоне или ТОРу,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а тонко, эффективно настроены именно на виды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все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региону. То есть дл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в любой точк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появится своё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меню льгот – весь набор доступных механизмов, включая пониженные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налоговые и таможен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помощь с подведени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объектов и так далее,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уделил беспилотным аппаратам, которые назвал транспортом будущег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 развитием БПЛА такой же оживленной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ей, как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и водные пути, становится небо на малых высотах. Поэтому уже сейчас необходимо задавать стандарты автономных перевозок гражданских грузов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Также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едложил в целях увеличения рождаемости продлить действие повышенной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третьего ребёнк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ах до 2030 года.

- Мы будет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решением поставленных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задач.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как и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За прошлый год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величился на 20 процентов, до рекордной суммы свыше 45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Это один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прироста в стране. Причем половина инвестиций направлена в отрасли, не связанные с добычей нефти и газа. 90 процентов сумм – частные вложения.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такого результата, мы создали разветвленную систему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снизи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Например, на 10-15 процентов сократили время протекания основных процессов в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цикле. Это очень выгодно бизнесу, который своими деньгами голосует з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эту работу,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зиция Президента поможет внедрению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экономике. Этот процесс активно и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н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дронопорт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учреждена полноценная беспилот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БАС». БПЛА следят за состоянием дорог, трубопроводов, ЛЭП. Применяются дроны и для защиты кри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Поддержк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считаю, глав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Мы также ведем эту работу.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уже создали систему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ддержки женщин во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после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наблюдаем при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населения на островах.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этом не собираемся.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рождение ребенка приносило семье настоящую радость и только приятные хлопоты,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проверит подготовку районов к осенним паводкам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порядился держать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одготовку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 осеннему паводкоопасному периоду.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где сохраняются риск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й расчистки русел рек и водоотводных сооружений,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команда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контроля».

Осенний паводкоопасный период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вязан с активизацией циклонов и тайфунов.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последствия дождевых паводков, ведется превентивная работа по выявлению с помощью БПЛА заторов на реках и последующей их расчистке. В 2026 году проведено обследование 23 водных объектов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почти 234 километра в восьми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его выявлено 318 завал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брали 209. Полностью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и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ы. Завершают работу Томари, Тымовское, Долинск и Макаров. Предупреждены все,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ликвидировать заторы до осенних тайфунов,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Саматов.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слушал доклады гла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в которых работа еще не завершена. В Долинском и Макаровском районах отчитались о планах ликвидировать заторы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й неде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у, где выявлено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завалов на водных объектах – 12.

— Запланированы работы в селе Ясном на реке Тыми, они продлятся две недели. Остальные водные объекты находятся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ах. По опыту прошлых лет мы заходим туда в ноябре, когда начинаются морозы, чтобы техника не провалилась в болото,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Юрий Болдов.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экологии совместно с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определить участки, гд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вести неотложные работы по расчистке.

— Нужно немедленно убрать заторы, которые могут стать угрозой подтопления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ли сноса мостов. На этой неделе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должен проверить, как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выполнена эта задача, - распорядилс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рофильным ведомствам 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 своевременно расчистить ливневые канализации и канавы. К проверке за подготовкой к осени водоотводных сооружений, защищающих от подтопления подвалы домов и дороги, также будет привлечен «Губернаторский контроль».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мотрел прибывший в морской порт Корсакова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й флот

7 сентябр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етил морской порт Корсакова, гд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 началу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подходном канале и в операционной акватории.

Глава области осмотрел прибывший в порт Корсакова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й флот – судн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несамоходный земснаряд, приобретенный ФГУП «Росморпорт» для нужд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ются работы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причалов Рыбного порта.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тупать к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м работам на подходном канале и в операционной акватории. В результате суда,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Тихом океане, смогут без потери времени заходить в порт и отгружать рыбу, а также проходить здесь обслуживание,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конце июля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на проведение дноуглубительных работ получи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Главгосэкспертизы. Их старт намечен на октябр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араллельно с дноуглублением будут вестись работы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гидротехнических сооружений Южного пирса. Весь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2030 года.

— На подходном канале и в операционной акватории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глубина в 11,4 метра, что позволит принимать крупнотоннажные суда с осадкой до 9 метр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Напомним, модернизация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а стартовала в 2024 году.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увеличит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и грузооборот порта, позволит ему получить статус глубоководного порта-убежища и станет важным шагом к созданию в Корсаков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хаба на Северном морском пути.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также будет создан волнозащитный мол,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автодорожный мост и проведены работы по берегоукреплению.

Вместо пустыря с гаражами –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й променад: губернатор оценил набережную Корсаковк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Корсаков прогулялся по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ковки и поддержал проект дальнейшего преображ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Еще пять лет назад здесь была заброш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а теперь – новая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и центр событий.

Перемены стали возможны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торая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ект преображения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Корсаковки неоднократно становился победител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и получал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 Набережная Корсаковки – сегодня одно из самых любимых мест отдых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Здесь проходят праздники, ярмарки и фестивали. Гуляют семьи с детьми, молодежь,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Мы слышим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т людей за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И для нас это лучшая оценка. Проект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длить благоустро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до мор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ект разбили на четыре тематических квартала, три из них уже воплотили в жизнь. Все зоны объединяет пешеходный променад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520 метров.

– Набережную мы очень ждали. Даже голосовали за то, чтобы ее благоустроили. Часто гуляем здесь. У меня дочка на велосипеде любит погонять. Дети на горочках катаются, на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ке занимаются. Очень рады, что есть место, куда можно прийти отдохнуть, посидеть. А детям – побегать, попрыгать, покататься. Для семейного отдыха – просто находка,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Корсакова Александра Пак.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оздали игровой квартал с детскими и спортивными площадками. На втором – квартал созерцания со смотровыми балкончиками, спуском к воде и зелеными аллеям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й квартал появился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 здесь благоустроили зоны отдыха, установили арт-объекты и фитостену из тысяч цветов. Сейчас реализуется четвертый этап – квартал событий. Планируется сделать павильон для мероприятий, террасу, ведущую к воде, скейт-парк, зону с батутами.

– На набережной открыли пончиковую, где продукция делается по рецептам еще 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Люди это помнят. Мы нашли женщину, которая работала в то время технологом. Получилось соединить ее опыт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 рассказала мэр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счистить и расширить реку.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воды по аналогии с набережной Рогат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област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ЖКХ совместно с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оду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техническое решени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интегрального индекс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стали лидерами роста интегрального индекса по итог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йтинга 2026 год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 2026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вышла на третье мест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Рейтинг формирует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за основу принимаются оценки со стороны самых взыскательных экспертов –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ни, ориентируясь на собственный опыт, оцениваю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мер,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льготы, скорость оформления различ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ыдачи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и так далее. На основе всех этих оценок и формируется интегральный индек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10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этого показателя. Фактичес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тмечен за скор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наце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 Мы тщательно изучили все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оцифровали и оптимизировали их. В результате у бизнесмен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на все эти процедуры времени уходит на 10-15 процентов меньше, чем прежде. А время, как известно, деньги. Это не преувеличение. Бизнесмены сокращают свои затраты, быстрее начинают получать прибыл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озд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растут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решаются соци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начинаю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наши острова как комфортное место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развивается экономика островов, растет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прошел 1-4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к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중징용 아픔 서린 사할린-왓카나이, 북방물류 거점 주목

강제징용 후손들, 이산의 아픔 딛고 사할린에 정착해 주류사회 진출

"역사 잊지 않지만 미래로 나아갈 때"… 한 · 러 · 일 가교 역할 기대

(2면의 계속)

코르사코프 항구 인근의 공동묘지에서 1970년대에 숨진 한인 1세들의 묘지에는 망향의 아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이들의 묘비에는 러시아인들과 달리 강제징용 되기 전 살았던 고향 주소가 한국어로 적혀있었다.

오 회장은 "후손들에게 고향을 잊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언젠가 고국에서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 자신의 묘지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려는 마지막 바람이었던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 끝나지 않은 이산…영주귀국과 대일배상 문제

한-소 수교를 계기로 사할린 한인의 귀환 논의가 본격화됐고, 1992년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1세대 강제동원 피해자를 중심으로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가 나섰고, 이후 재외동포청이 이어받아 지금까지 5천690명이 귀국했다.

그러나 영주귀국 대상이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이주한 1세대와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로 제한돼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상이 다소 확대됐지만 여전히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사할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세대 자녀들과 헤어져 홀로 귀국해야 하는 '역(逆) 이산가족'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세대분리라는 반쪽짜리 시혜적 사업을 넘어서 한인 후손들이 한-러-일 3국을 잇는 미래 인적 자산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연결'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서도 지적을 잊지 않는다. 일제는 강제징용했던 한인들의 일당 등 임금을 우체국의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넣게 했는데 패망 후 미지급한 채로 철수했다.

고영순 사할린한인연합회 회장은 "냉전 시대에는 반환 청구할 방법도 없었고, 당사자들이 보관하던 우편 저금 통장 등이 분실되거나 사라져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편 저금 명세 등이 일본 정부에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2천3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냈던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 회장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가 달리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노역 후 고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있어 양국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한-러-일 잇는 물류 거점 주목…"가교 역할 기대 커"

사할린 한인 후손들은 자기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러시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

70~80대에 이른 한인 2세들의 경우 대화를 할 때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가 섞여 나온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복잡한 정착사가 그들의 언어 구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박순옥 회장은 "귀향에 대한 염원을 간직한 채 1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떴고 남은 후손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여러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원망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한-러-일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수록 사할린 한인들의 징검다리 역할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 2세인 최금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할린지회장은 "한인들이 한민족 풍습을 가장 잘 지켜온 것이 돌잡이·환갑·진갑·팔순잔치"라며 "생애를 주기로 한 잔치를 지켜온 것은 그만큼 삶이 고달팠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인들의 거주가 100년 가까이 되면서 현지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것도 한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한몫하고 있다.

사할린 주도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사할린 전역 300여곳의 슈퍼에 납품하는 최 알렉산드리아·이 보리스 부부는 "현지인들이 김치 등 한식을 즐기는 이유는 한류 덕분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한인들과 이웃해 살아왔기 때문"이라며 "최근 모국의 발전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한인들의 역할이 주류사회에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 빅토리아 새고려신문 대표는 "한인들은 변호사, 의사, 교수, 공무원 등의 전문직과 수출입·관광·제조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데다 근면성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후손들의 자부심도 크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과 이중징용의 루트였던 사할린 남단의 코르사코프 항구와 홋카이도 북단의 왓카나이 항구는 한국-일본-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물류 항구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가 녹아 북극항로가 개설될 경우 한반도에서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로가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의 라페루즈(소야) 해협을 이용하는 방법이 된다.

러시아는 일본 정부에 시베리아 철도를 연장해 사할린에서 홋카이도를 잇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제의하기도 했다.

주블라디보스토크한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의 국장현 소장은 "일제강점기 징용 수송로였던 이 바다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홋카이도 물류망을 잇는 단거리 징검다리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극해 항로가 현실화되면 사할린은 단순한 섬이 아닌 북극항로의 동쪽 '남단 전초기지'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페루즈 해협의 폭은 42㎞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왕복 연락선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해산물 수출입은 여전히 활발하며 무역업에 사할린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

왓카나이 항구도시에는 러시아인 거리가 있을 정도로 관광과 무역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활발히 오간다.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지금은 활력을 잃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사할린 잔류자들'의 저자인 홋카이도대의 파이차제 스베틀라나 교수는 "홋카이도에만도 사할린 한인 후손들이 300여 명 거주하고 있다."며 "대부분 재일동포 사회에 흡수되어 있지만 한-러-일 수산물 교역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사할린 한인사회를 이끄는 원로 세대는 후손들이 역사적 상처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코르사코프한인디아스포라연합회의 오정대 설립자는 "강제징용과 이중징용의 아픔을 지닌 후손들이 역설적으로 삼국 간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에 앞장서고 있다."며 "역사적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승화시키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반겼다.

사할린 중앙변호사회의 유일한 한인 변호사인 젬 나탈리아 씨는 "사할린 한인 후손들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면서, 1세대 및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어를 익혔고, 역사적·지리적 배경 상 일본어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3국 간 물류, 통관, 무역, 법률 현장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군"이라고 자부했다.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시차와 관계없이 카카오톡으로 국적·병무·가족관계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가 카카오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가 '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8일 전했다.

카카오가 주최·주관하는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는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선정하는 행사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2024년 1월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했다.

별도의 국제전화 없이 카카오톡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도 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아포스티유 등 주요 영사 민원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국세·관세·고용 등 관계기관 업무까지 폭넓게 다룬다.

실제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다.

카카오톡 상담은 2024년 5,376건에서 2025년 6,201건으로 15.3% 증가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4,874건을 기록했다. 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도 1만 1,600명으로 늘었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렵거나 제한된 지역의 재외동포는 전화와 웹콜, 웹챗을 이용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4월 데이터 통화 방식의 웹콜을, 같은 해 9월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상담할 수 있는 웹챗을 도입했다.

김연식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재외동포들의 민원 상담 편의를 높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기부박스에 담은 따뜻한 온기로 이웃과 명절을 보내요" 서울시, 추석맞이 범시민 나눔 캠페인 전개

10월 16일(금)까지 추석 명절 전후 5주간 캠페인 전개… 일상 속 나눔 문화 확산 도모

구청, 동주민센터 등 거점기관에 설치된 기부박스에 식품, 생활용품(의류, 휴지, 치약 등) 기부

서울시와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4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명절 전후 5주간 '풍성한 한가위, 나눔으로 온기를 잇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당 캠페인은 2021년 추석 비대면 참여형 행사로 최초 도입되어, 단순한 복지 자원 전달을 넘어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상생형 복지사업으로 안착했다. 지난 추석에는 총 9억 3천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이 모금되어 12,966가구에 배분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청, 동주민센터 등 자치구별 지정된 거점기관에 방문하여, 설치된 기부박스에 식품 및 생활용품을 넣는 방식으로 동참할 수 있다.

기부박스 설치 위치 등 세부 참여 장소는 서울잇다푸드뱅크 누리집(www.s-foodbank.or.kr) '참여하기-캠페인후원'에서 확인하거나 포스터 하단의 '우리동네 기부박스 위치확인' QR코드를 스캔하여 찾을 수 있다.

기부가 가능한 품목은 통조림, 캔음료, 라면, 쌀 등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과 생활용품(의류, 휴지, 치약 등)이다. 다만,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 기부가 제한된다. 신선·냉장·냉동 식품은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02-905-1377) 또는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으로 사전 문의하여 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거점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잇다 푸드뱅크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홍보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현물·현금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온라인 잇다 푸드뱅크 누리집(www.s-foodmarket.or.kr)에 직접 접속해 '기부신청'에서 기부하거나, 홍보 포스터에 삽입된'온라인 푸드뱅크 기부하기' QR코드를 통해 플랫폼에 접속한 뒤 기부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범시민 나눔 캠페인을 통해 거점기관에 접수된 기부물품은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에서 신속히 수거, 분류·검수 절차를 거쳐 결식아동, 긴급위기가정, 어르신 등 지역 내 식품 취약 계층에게 전달한다.

김홍찬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 바라며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라며, "작은 나눔이 모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 보도자료)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Такж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роделан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созданию интернет-пособ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и в аудиоформате. Коллектив аранжирует детские песенки, записывает фонограммы (минусовки)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балалайка, жалейка, трещотки) и готовит метод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Уже сегодня их используют педагоги из Москвы, Красногорска и даже Луганс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поддержало этот проект. Его презентация состоится в октябре — методические пособия поступят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региона.

사할린 통계국, 사할린 주민들 더 많이 벌어도 덜 쓴다

사할린주 주민의 지난 1년간 소득이 8.3% 증가했는데 지출은 7.9%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2026년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

사할린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지만, 상점에서 꺼내는 지갑은 좀더 가벼워졌다. 사할린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사할린 주민들의 소득은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8.3% 증가했으나 소비는 7.9% 소폭 증가에 그쳤다.

2025년 4분기 사할린 주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12만6천 487루블리였고, 2024년에는 11만 6천815루블리로 약 1만 루블리가 증가한 셈이다.

동년 기간에 소비지출은 월평균 7만3천 864루블리에서 7만9천 705루블리까지 증가해 전년대비 약 6천 루블리 차이가 났다. 요약하면 소득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은 더 많은 여유자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6년2분기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5년에 2분기 월평균 소득은11만 4천775루블리였고, 2026년에는 12만3천 415루블리였으나 월평균 지출은 2025년에 7만5천 480루블리에서 2026년에 8만 2천600루블리까지만 증가하여 이러한 여유자금의 증가가 계속되는 추세다.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больше зарабатывать и меньше тратить: статистика Сахалинстата

За год доходы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и на 8,3%, а расходы — на 7,9%.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2026 года тенденция сохранилась.

Карманы сахалинцев стали тяжелее, а кошельки — чуть легче на выходе из магазинов. По данным Сахалинстата,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2025 года доходы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и на 8,3%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24 года. При этом тратили они чуть скромнее — прирост расходов составил 7,9%.

В четвертом квартале 2025 года средние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сахалинцев составили 126 487 рублей в месяц. Годом ранее — 116 815 рублей. Плюс почти 1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е расходы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выросли с 73 864 до 79 705 рублей. Разница — почти 6 тысяч. Итого: доходы растут быстрее, чем траты. А значит, у людей остается больше свободных денег.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2026 года картина похожая. Доходы — 123 415 рублей против 114 775 рублей годом ранее. Расходы выросли с 75 480 до 82 600 рублей. Тренд на увеличение сбережений сохранился.

러시아, 백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에서 4위에 올라

러시아는 국가가 보유한 백만장자의 수에 따른 세계 순위에서 4위를 유지하고 있다.2025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10억 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는151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알트라타(Altrata)정보분석 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억만장자의 수 증가는 몇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며 그중 원자재 판매 수익, 환율 및 금리 변동 수익, 러시아 무역이 아시아 시장으로의 방향 전환을 언급했다.

모스크바는 백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은 도시에 들지만 신규 순위에서는 자료 부족으로 1위에서 제외됐다. 백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는 뉴욕, 홍콩,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가 올랐다.

국가들 중 1위는 미국이 차지했는데 미국에서는 1년에 백만장자의 수가 11.5% 증가해 12,65명이었고, 미국 백만장자는 전 세계 백만장자의 총자산 44%를 보유하고 있다.

2위로 중국이 오른 가운데 백만장자는 363명이고,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3위는 독일이 차지해 백만장자가 221명이고, 전년 대비 20.1%가 증가했다. 5위는 인도가 차지해 백만장자는 132명이고,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2025년에 백만장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15개 국가들의 총자산은 전 세계 억만장자 전체 자산의 83%를 차지했다.

Россия вошла в четверку стран с самым большим числом миллиардеров

Россия сохранил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стран по числу миллиардеров. По итогам 2025 года в стране насчитали 151 человека с состоянием более $1 млрд — на 18%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иводят РИА Новости со ссылкой на аналитическую компанию Altrata.

Аналитики связывают рост числа миллиардеров с несколькими факторами. Среди них — доходы от продажи сырьевых товаров, изменение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и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а также переориент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торговли на азиатские рынки.

Москва обычно входит в число городов с наи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миллиардеров, однако в новом рейтинге ее не учли из-за недостатка доступных данных. Лидерами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тали Нью-Йорк, Гонконг, Сан-Франциско, Лондон и Сингапур.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тран заняли США. Там за год число миллиардеров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1,5% — до 1 265 человек. На американских миллиардеров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44% совокупного состояния всех миллиардеров мира.

Вторую строчку занял Китай — 363 миллиардера после роста на 13,1%.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Германия, где число сверхбогатых людей выросло на 20,1%, до 221 человека.

Пятерку лидеров замыкает Индия — там насчитали 132 миллиардера, что на 3,9% больше показат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15 стран с наибольшим числом миллиардеров в 2025 году пришлось 83% совокупного состояния этой группы.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싣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